

국립국어연구원 소식

1. 국립국어연구원 1994년도 연구 보고서 발간

국립국어연구원은 1994년도의 조사 연구 사업 성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서로 발행하였다.

- (1) '현대 국어의 약어 목록'
- (2) '신어의 조사 연구'
- (3) '국어 순화 자료집'
- (4) '국어학 연감'
- (5)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Ⅲ)'
- (6) '영어-한국어 번역의 언어학적 연구'

이 보고서들은 정부 기관, 국공립 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 관련 학계 인사, 기타 관련 기관에 배포되어 업무와 연구에 활용될 것이다. 각 사업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 국어의 약어 목록은 '94년 연구 사업인 '현대 국어의 약어 조사 연구'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현대 국어 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약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고, 우리말 조어법 연구에 도움을 주며, 국어 사전에 아직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약어를 제시함으로써 국어 사전 편찬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이 목록에는 오늘날 일상 생활에 널리 쓰이는 7,636개의 약어가 수록되어 있다. 각종 신문과 잡지, 단행본, 방송, 광고, 구어 등에서 예를 찾은 후, 국어 사전과 각급 학교의 각종 국정 교과서 및 '한자·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 보고서'(1910~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1990년도, 1991년도), '국어 순화 자료집'(1992년도, 1993년도, 1994년도)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으로, 일반 용어뿐만 아니라 널리 쓰이는 전문 용어,

고유 명사 및 비어·속어도 포함하고 있다.

‘신어의 조사 연구’는 1994년에 간행된 신문과 잡지에 사용된 일반 어휘 중에서 사전에 올림말로 채택된 적이 없는 단어들을 신어로 보고 조사한 것이다. 새로 외국어에서 수입된 말과 사전에 수록된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 말들도 수집하였다. 모두 1,634개 단어를 수집하였는데, 이 중에서 의미가 달라서 수집한 신어가 45개이다. 조사된 신어를 가나다순으로 표제어, 인용문, 출전의 순서로 밝혔으며, 마지막 음절 초성을 기준으로 역순으로 정리한 목록을 첨부하였다.

‘국어 순화 자료집’은 산림청에서 수집하여 심의 요청한 임업 용어 241 단어, 문화체육부의 민원(민원인: 정준열)을 통하여 접수된 봉제 용어 331 단어, 국악교육협의회와 국립국악원에서 심의 요청한 초·중·고등 학교 교육용 국악 용어 447 단어를 순화하여 모아 놓은 것이다.

자료집이 나오기까지 국립국어연구원은 이 용어들을 검토하고 순화안을 마련하여 국어심의회에 상정하였고(1994. 9.), 국어심의회는 두 번에 걸친 소위원회 회의(1994. 12. 1./12. 5.)와 네 번에 걸친 본회의(1994. 9. 14./9. 15./9. 26./12. 12.)를 개최하여 이들 용어들의 순화어를 최종 심의 확정하였다.

‘국어학 연감’은 해마다 국어학계의 연구 성과와 동향을 정리하기 위하여 발간하고 있다. 이번 1994년판은 1992년과 1993년에 이어 세 번째 나온 것으로 1993년의 국어학의 주요 일지, 국어학의 연구 동향, 국어학 관계 문헌, 국어학 관계 명부를 실었다.

국어학의 주요 일지에서는 1993년 국어학계의 중요한 일들을 정리하였고, 국어학의 연구 동향에서는 이전에 14~15개 분야로 나누어 정리했던 것을 7개 분야로 나누어 그 분야의 연구 흐름을 정리하였으며, 국어학 관계 문헌에서는 국어학 관계 저서·논문·논평·기사 등을 조사하여 분야별 논저 목록을 작성하였고, 정기 간행물 목록도 넣었다. 국어학 관계 명부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국내의 국어학 전공자를 소개한 국어학 인명록, 국어학 관계 학과, 국어학 관계 학회 및 단체, 국어 정책 관계 위원회가 들어 있다.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Ⅲ)’은 북한 사전에 반영된 다듬은 말을 바탕으로 북한 언어 정책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말 다듬기 사업의 성격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사전은 “현대조선말사전(1981)”과 “조선말대사전”(1992)이며, 연

구 목표는 북한 사전에 나타난 '다듬은 말'의 성격과 실상을 드러내는 것과, "현대조선말사전"(1981)과 "조선말대사전"(1992)에 반영된 '다듬은 말'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후자의 작업은 전체 북한어의 변화 방향을 살펴보는 데에도 유력한 실마리가 되었다. 두 가지 작업의 결과 다듬은 말의 특성으로 대략 여덟 가지가 제시되었다.

- ① 단어로 보기 어려운 구 형식들이 많다.
- ② 현대 국어 조어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비통사적 합성어가 많다.
- ③ 단어 전체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단어 구성 성분별로 직역한 경우가 많다.
- ④ '-기' 형식으로 다듬은 경우가 많다.
- ⑤ 형태상으로 서로 연관이 되는 단어들을 고려하지 않고 다듬은 경우가 많다.
- ⑥ 한자 표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 ⑦ '관형사형+명사' 구성이 '명사(형)+명사' 구성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 ⑧ 다듬은 말이 실제 생활에서 기존 단어를 대체하여 쓰일 수 있는가에 유의하지 않고 한자어를 고유어로 기계적으로 바꾼 결과, 다듬은 말이 기존 단어에 비해 대체로 그 의미 전달력이 약하다.

'영어-한국어 번역의 언어학적 연구'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양 언어의 구조적 차이를 기준으로 10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정리한 다음, 마지막 제 11장에 이를 종합적으로 적용한 번역의 실제 항목을 두었다. 여기서 다루어진 10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대명사
- (2) 품사
- (3) 부정사와 연결 어미
- (4) 단수와 복수
- (5) 관사와 조사
- (6) 시제
- (7) 화법
- (8) 수동태
- (9) 어휘
- (10) 문장 부호

2. '한글 맞춤법'의 일부 용례 수정

문화체육부 문화정책국 어문과에서는 1994년 12월 26일 국어심의회 한글 분과 위원회를 문화재 관리국 회의실에서 개최, 그 동안 지적되어 온 '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 간의 상충된 예들을 심의하였다.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조 항	용례	처리	비고
'한글 맞춤법' 제18 항의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그립니다 까맣니다 동그립니다 퍼립니다 하얍니다	삭제	'표준어 규정' 제17 항이 자음 뒤의 '-습니다'를 표준어로 정함에 따라 '그렇습니다, 까맣습니다, 동그랗습니다, 퍼립니다, 하얍습니다'가 표준이 되는 것과 상충됨.
'한글 맞춤법' 제32 항	온갖 온가지	삭제	'표준어 규정' 제14 항에서 '온가지'를 비표준어로 처리한 것과 상충됨.
'한글 맞춤법 해설' 제54 항	언덕빼기	삭제	'표준어 규정' 제26 항이 '언덕배기'와 '언덕바지'를 복수 표준어로 규정한 것과 상충됨.

이 날 심의회에서는 이 밖에 일부에서 이의가 제기된 다음 사항도 심의하였다.

1. 한글 맞춤법 제10 항 붙임2('이요/-이요, 아니요/아니요, 하시요/하시요' 문제)
2. 한글 맞춤법 제15 항 붙임2('신립, 최린, 채륜' 등 외자로 된 이름의 표기 문제)

그러나 이 두 항에 대해서는 수정 없이 현행의 규정을 유지하도록 결정하였다.

3. 스웨덴어 등 북구의 3언어 외래어 표기법 확정, 고시

국립국어연구원이 마련한 북구권의 세 언어(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의 외래어 표기법안이 1995년 1월 20일 열린 국어심의회 표기법과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3월 16일자로 고시되었다.

국립국어연구원은 1992년 동구의 5언어에 대한 표기법안 작성에 이어 1993년부터 북구 언어의 표기법안 작성에 착수하였는데 북구권 언어 중에서 언어 계통이 독자적이고 해당 분야의 국내 전문가가 없는 핀란드어를 뺀 세 북구 언어에 대한 외래어 표기법안을 변광수(한국외국어대 스칸디나비아어과 교수), 이민우(동양일보 주필), 성백인(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의 자문을 거쳐 작성하여 문화체육부에 제출하였고 국어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하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 북구의 지명, 인명에 대해서는 원칙상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옮기도록 되어 있었지만 현지 국제 음성 기호로 표시된 현지 언어의 발음을 알 길이 거의 없어서 북구의 지명, 인명을 표기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1986년에 발간된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 인명)에 북구의 지명, 인명의 한글 표기가 제시되어 있지만 수록된 지명, 인명의 수효가 아주 제한되어 있었고 수록된 지명, 인명의 한글 표기가 현지 원음과 매우 다르게 표기된 예가 많았다.

이번에 고시되는 북구 3언어의 표기법 가운데 스웨덴어의 표기법은 자모와 한글이 일정하게 대응되어 스웨덴어 철자만을 보고도 자모와 한글 대조표에 의하여 표기를 할 수 있지만 노르웨이어와 덴마크어의 경우에는 일부 자모의 표기를 위해서는 그 발음을 알아야 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번 표기법의 제정으로 교과서, 언론은 물론 지도 제작, 백과사전 편찬에 있어서도 북구권의 지명, 인명을 원지음에 가깝고도 일관되게 한글 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북구권 언어 외래어 표기법의 제정으로 달라지게 되는 지명의 한글 표기는 아래와 같다(괄호 안의 표기는 이번 표기법의 제정 이전의 표기).

스웨덴

Jönköping 엔세핑(이원최핑), Falköping 팔세핑(팔최핑), Linköping 린세핑(린최핑), Norrköping 노르세핑(노르최핑), Närke 니세핑(니최핑), Rosby 로스뷔(로스비), Lydberg 뤼드베리(리드베리), Borlänge 보를랑에(보를랑계), Nässjö 네세(네시오), Visby 비스뷔(비스비)

노르웨이

Levanger 레방에르(레방게르)

덴마크

Fyn 핀(핀), Ålborg 올보르(올보르그), Helsingør 헬싱외르(헬싱피르), Hjørring 예링(이외링)

4. 제4 차년도 제1 회 사전편찬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우리 원에서 추진 중인 중합국어대사전의 편찬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편찬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1. 일시 : 1995년 3월 17일(금) 오후 4시 30분~6시

2.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1층 회의실

3. 안건 : 1) '95년 사업 추진 계획 보고

2) 사전의 명칭 등 현안 문제 토의

4. 참석자

- 당연직 위원 - 김도현(차관 : 위원장), 김용문(문화정책국장), 송민(국립국어연구원 원장)
- 임명직 위원 - 강신항(성균관대 교수), 김석득(연세대 교수), 김완진(서울대 교수), 성백인(서울대 교수), 안병희(서울대 교수), 이기문(서울대 교수), 이용주(서울대 교수), 정명환(성심여대 교수), 정연찬(서강대 교수)
- 본부 - 김홍렬(행정 사무관)
- 우리 원 - 박양규(어문규범연구부장), 최규일(어문실태연구부장), 강인선(어문규범연구부 연구관), 이현우(어문자료연구부 연구관), 김세중(어문실태연구부 연구관)

5. 연구원 인사 이동

퇴임

안병희 : 국립국어연구원장 임기 만료('94년 12월 31일자)

박양규 : 국립국어연구원 어문규범연구부장 임기 만료('95년 3월 22일자)

김정우 :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사임('95년 3월 1일자)

신규 발령

송 민 : 국립국어연구원장 (1급 상당) 발령('95년 1월 18일자)

서종학 : 어문규범연구부장(학예연구관) 겸임 발령('95년 3월 23일자)

전보 발령

안경자 : 문화체육부 관광국 → 국립국어연구원 서무과('95년 1월 13일자)